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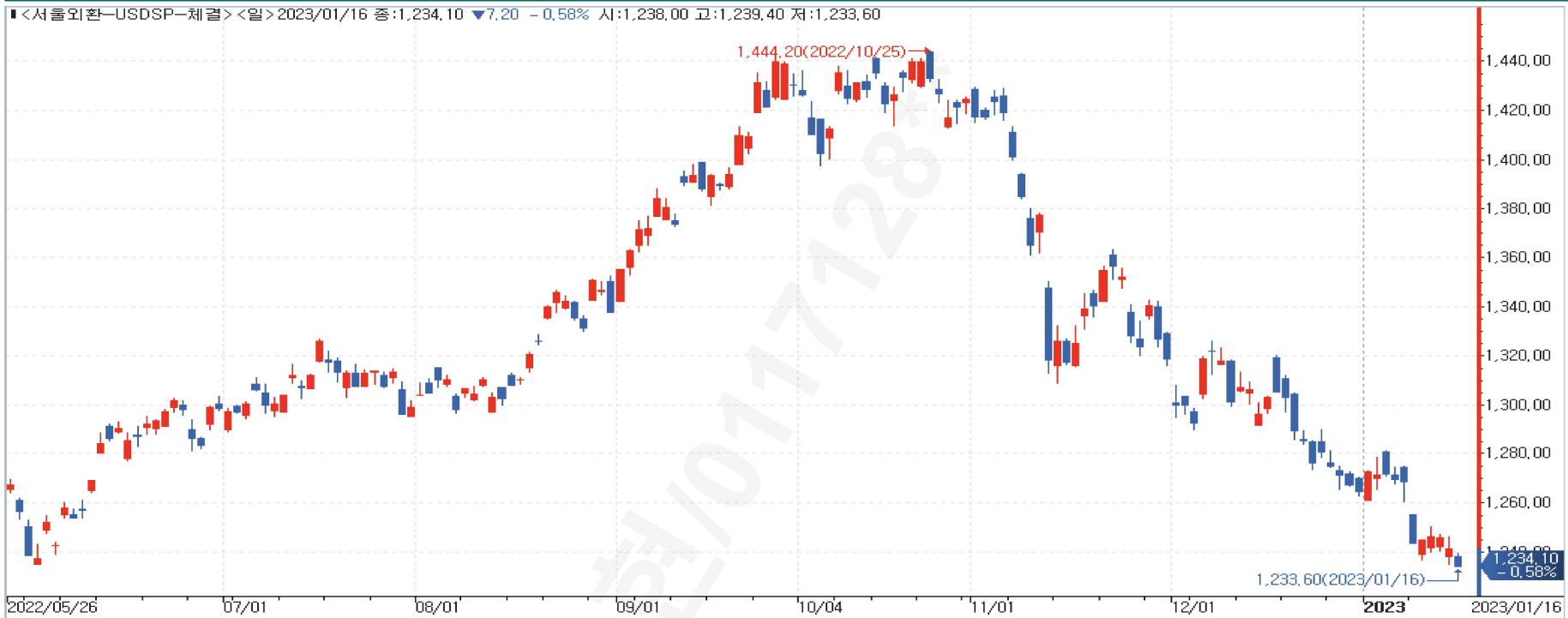
2023. 1. 16

시 정훈 연구위원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1/9~1/13)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국 고용지표의 견조한 개선 흐름에도 임금상승률 둔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반영하며 큰 폭 하락 출발. 이어 중국 리오프닝 재개 기대 등에 따른 위안화 강세 등으로 하락 추세 이어졌으나, 국내 경상수지 적자 소식 등이 원화 강세를 제한한 형국
- 중반,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 속에 위험 선호 영향 반영되며 하락 추세 유지 하다 중국 위안화 약세 전환에 동조 흐름 보이며 소폭 상승
- 주 후반, 미국의 12월 CPI가 시장 예상에 부합한 6.5% 상승에 그친 가운데 연준의 피벗 기대감이 위험 선호에 영향을 미친 상황에서 한은의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 등이 소폭 원화 강세 견인하며 1,241.3원으로 마감

달러/원 전망

- 금주 환율은 미국 인플레이션의 큰 폭 하락 영향 및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등에 따른 FOMC에서의 베이비 스텝 가능성 기대 등에 따른 달러 약세 흐름이 다소 이어질 전망
- 특히, BOJ 금정위에서의 기존 초완화적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 등이 상당히 탄력 받고 있다는 점 등이 달러 약세에 크게 반영될 전망 속 엔화 강세에 원화의 동조 흐름 등으로 다소 하락 흐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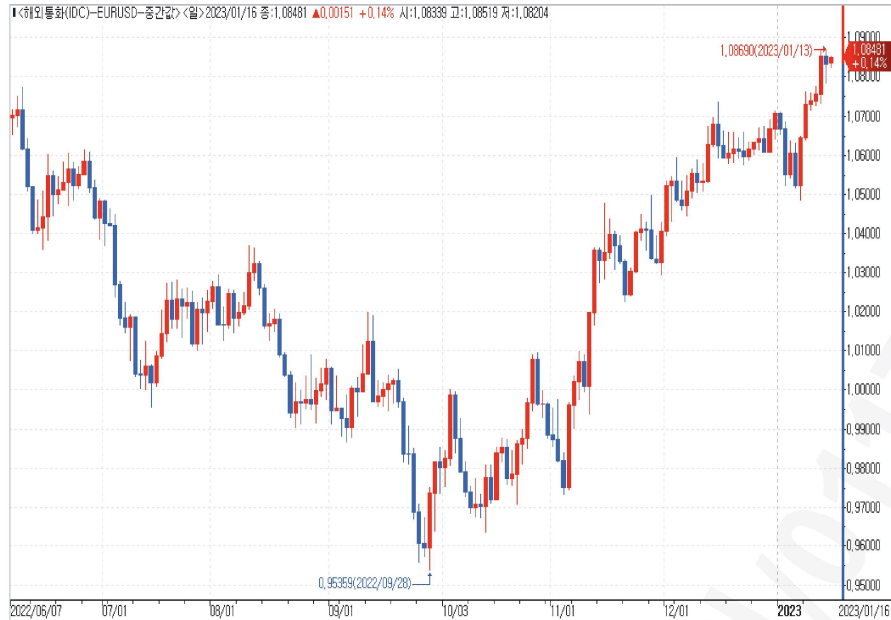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255.0	1255.0	1234.5	1241.3	-27.3

예상거래범위

1,225원 ~ 1,245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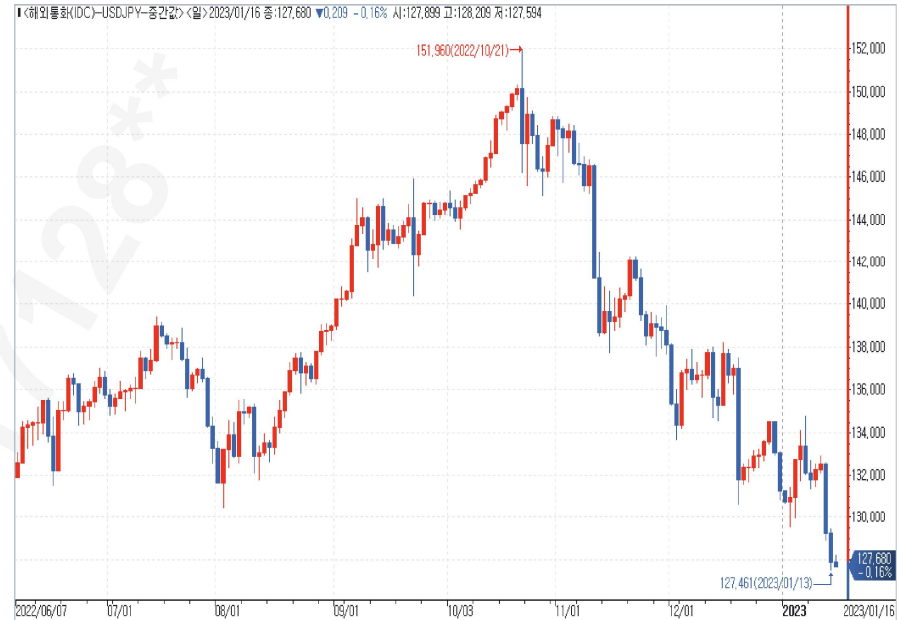
엔·유로화 동향 (1/9~1/13)



유로화 동향

- 주초,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 측면과 중국의 경제 리오프닝 영향 등으로 달러 약세 흐름 속 유로 강세 출발. 이어 연준 위원들의 매파 행보에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 될 것이란 기대가 우위를 보이며 강세 지속
- 중반 들어, 미국 12월 CPI 발표를 대기하면서도 연준의 매파적 행보가 올해는 완화될 것이란 기대 반영 속에 유로 상승세 지속 흐름
- 후반 들어, 12월 미국 소비자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인 6.5%에 부합하며 달러인덱스가 6개월 만에 최저치 하락한 영향 등이 반영되며 주중 강세 흐름 지속 후, 후반, 유로존 무역수지 적자 소식 등을 반영하며 약세 전환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645	1.0869	1.0636	1.0833	-0.0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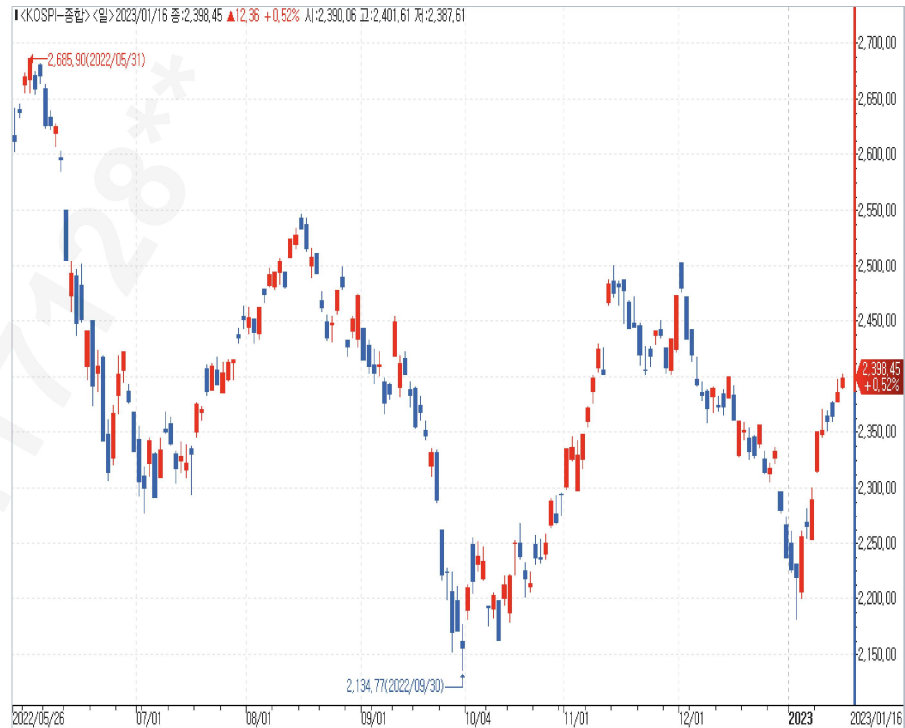
엔화 동향

- 주초, 미국의 임금 상승 둔화에 따른 긴축 완화 기대로 달러 약세 반영되며 강세 출발. 이어 파월 의장의 스톡홀름 연설이 향후 물가 대응에 대한 힌트를 제시하지 않았던 가운데 주요 연준 위원들의 조기 피벗 기대감 차던 언급 등으로 엔화는 약세 전환
- 중반 들어,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올해 완화할 것이란 기대에도 BOJ 그중 통화정책을 앞두고 연초의 포지션 조정 물량 확대가 엔화 약세 지속에 영향
- 후반 들어, 미국 CPI 상승세 둔화에 따른 연준 피벗 기대감이 되살아나는 분위기 속에 BOJ가 차주 예정인 통화정책 회의에서 현 완화정책 부작용을 검토한다는 소식 등에 영향으로 강세 전환 후, 주 후반 일본 국채 금리 상승 등이 엔화 강세 지속을 견인하는 가운데 한 때 127.4엔까지 강세 흐름 보인 가운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2.1	132.9	127.5	127.9	-4.2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9~1/13)



주간 국고채금리 동향

- 주 초반, 미국 12월 실업률 지표 하락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 둔화에 따른 긴축 우려 완화 속 외국인 국채선물 대량 매수 등으로 급락 출발. 이어 미국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반영한 미 국채금리 영향을 반영하며 추가 하락 이어진 국면
- 중반 들어, 파월 의장 연설이 향후 연준의 긴축 방향성에 대해 다소 모호했던 가운데 일부 위원들의 매파 성향이 지속되었지만 그 파급 효과는 미미. 여기에 외국인 국채선물 대규모 매수 기조가 이어지며 하락 양상 지속
- 후반 들어, 대내외 이벤트 대기 속에 소폭 하락 이어간 가운데 주 후반, 미 12월 CPI가 시장 예상에 부합한 6.5% 상승한 영향이 연준 피벗 기대감을 강화한 가운데 금통위 금리 인상 결정에도 국내 경제의 성장 전망 추가 하향 가능성 점중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크게 하락하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미국 12월 고용이 여전히 견조세를 보였음에도 임금상승률과 서비스업 지표 둔화에 따른 연준 긴축 근거 약화 가능성 등이 위험선호를 자극하며 상승 출발. 이어 파월 의장의 연설과 12월 CPI 경계감 속에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등으로 보합권 등락
- 중반 들어, 파월 의장의 스톡홀름 연설이 재차 물가 안정 의지를 보였음에도 CPI 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란 기대감과 중국의 리오프닝 영향이 투자심리를 개선시키며 상승세 견인된 양상
- 후반 들어, CPI에 대한 감소 기대와 중국의 봉쇄 해제 기대 등이 전일에 이어 위험선호를 견인한 가운데, 주 후반, 미국 12월 CPI가 6.5% 상승에 그치며 연준 피벗에 대한 기대감 상승 등으로 소폭 강세 지속하며 마감